성도의 별을 보니 '다 성취되었다'

동휘 스님, 10월 11~19일 '깨달음의 별 축제'

유리공주 별만다라 100점 전시
압구정 여래사서… 2시 법문도



동휘 스님이 그린 유리공주 별만다라

만다라 작가로 잘 알려진 동휘 스님이 전시와 법회가 어우러진 축제 마당을 연다.

동휘 스님은 9월 26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부처님 탄생만큼 중요한 것이 '성도'이다. 부처님이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듯이 '별'을 주제로 한 '옴오로라 깨달음의 별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리는 '옴오로라 깨달음의 별 축제'는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서울 강남 압구정 여래사에서 진행된다. 축제에는 새로운 개념의 만다라인 '유리공주 별만다라' 100점이 전시되며, 매일 오후 2시 스님의 법문도 진행된다.

동휘 스님이 이번에 선보이는 '별만다라'는 치유와 통합을 의미하는 '약사유리광여래불(약사여래)'을 여성성을 가미해 상징화한 것이다. '유리공주'의 눈에 비친 별을 메인 주제로 다양한 문양과 글들이 다채로운 색감으로 채워졌다. 동휘 스님이 별만다라만으로 전시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축제에 대해 동휘 스님은 "'옴오로라 깨달음의 별 축제'는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별을 통해 우리도 부처님처럼 별을 보고 깨달아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모두 불성이 빛나는 별임을 알리고, 대한민국이 깨달음의 별들이 매일 탄생하는 중심임을 알리는 축제 마당이 될 것"이라며 "올해 축제를 기점으로 깨달음을 주제로 한 축제를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02)540-5272 신성민 기자

천태예술공모대전 대상에 '화엄-2016'

7개 분야 120점 입상… 11월 16일 시상


대상작 황규철 씨의 '화엄-2016'

천태종이 올해 야심차게 마련한 제1회 천태예술공모대전서 황규철 씨의 '화엄-2016'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은 9월 29일 서울 인사동 한 음식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문가 심사를 마친 '제1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수상 결과를 발표했다.

상금 1천만원인 대상에는 황규철 씨의 현대불화 '화엄-2016'이 선정됐다. 이 작품은 총 8개의 철판 위에 부처 형상과 연꽃 등을 그려 넣고 산화시켜 부각했다. 전통과 현대적 기법을 아우른 실험정신이 높게 평가됐다.

최우수상은 강신애 씨의 전통불화 '반야바라밀다심경만다라'와 한동인 씨의 조각 '상원사문수동자(재현작)'가 받았다. 우수상은 각 분야별로 △이윤경-천수천안관세음보살(전통불화) △진현진-구인사아미타불도(현대불화) △박옥실-화조도(민화) △임형철-석가모니(조각) △장성우-건칠칠보문정병(공예) △신광자-부모은중경 제1장(한문서예) △김운식-구인사 생전예수재 등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가작 7점, 장려상 13점, 특선 36점, 입선 54점 등이 입상했다.

특히 이번 천태예술공모대전에는 300여 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심사위원으로는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위원장), 손연칠 前 동국대 교수, 정우택 동국대박물관장, 윤범모 前가천대 교수, 이관섭 문화재전문위원, 윤열수 가회민화박물관장, 권성하 · 김선숙 서예가, 이상배 문인화가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천태종은 11월 16일 서울 인사동 씨라이트(구 아라아트센터)서 수상작 시상식을 개최하며, 1주일간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최첨단 미디어로 만나는 SMART 불교문화

BBS불교방송, 2016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 개최



통일 신라시대 조성된 성덕대왕신종(일명 에밀레종)을 주제로 한 '2016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이 천년고도 경주에서 개최된다.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이 개최하는 이번 축제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경주 첨성대 잔디광장에서 펼쳐진다.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은 현존하는 세계의 종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우리 방식으로 만들어진 '성덕대왕신종'의 가치를 알리고,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천년고도 경주에서 열리고 있다.

올해 축제는 '세계의 종 타종 체험', 경주 유적지를 4D로 체험하는 '리얼 4D 큐브 체험', 40여 가지의 '신라문화 체험'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특히 이번 에밀레전은 'SMART'를 주제로 펼쳐진다. 불국사와 첨성대, 동궁과 월지, 대릉원, 경주 남산 등 경주 주요 유적지가 4차원 입체 영상으로 구현된다. 에밀레전을 찾은 관람객들은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준비한 '리얼4D큐브'에서 아름다운 경주를 4D로 직접 느낄 수 있게 된다.

국보 31호 첨성대와 국보 21호 불국사 석가탑 등 주요 문화재는 3D프린팅을 이용해 모형 첨성대와 석가탑으로 다시 태어난다. 3D 프린팅 전문 업체 3D뱅크

10월 7일부터 3일간 열려
경주 첨성대 광장서 개막식
경주유적 4D체험 등 눈길

가 미리 준비해둔 모델링을 바탕으로, 관람객 누구나 현장에서 바로 실물을 출력할 수 있으며 소장도 가능하다.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경주의 문화재들은 '에밀레전'의 색다른 볼거리가 된다.

이와 함께 성덕대왕 신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형 LED 종으로 제작해 신라 왕경을 환하게 밝히게 된다.

에밀레종을 형상화한 6톤 규모의 '에밀레 모형종 타종 체험'과 경주의 밤하늘을 밝힐 '신라 간등회'는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이다.

'에밀레 주제관'은 30여 평의 기와집으로 조성되며 6개의 신라시대 범종 모형종 전시를 비롯해 성덕대왕신종 표면의 기록물인 명문 해석과 문양 설명 등을 전시한다. 또 성덕대왕신종의 특징과 과학성, 주조과정 등을 그림으로 쉽게 풀이해 소개한다.

'신라문화 체험 마당'은 성덕대왕신종 비천상 탁본 및 인경 체험, 신라 금관 만들기, 신라 왕과 왕비 옷 체험 등 옛 것을 배우고 즐기며 체험하는 40여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신라 간등회(看燈會)'는 한국 전통등의 효시인 신라시대 간등(看燈)을 재연하는 행사로 대형 공작등과 용(龍)등, 에밀레종 모형 등을 비롯한 50여 개의 대형 전통등이 첨성대와 함께 은은한 야경을 연출할 예정이다.

6톤 규모의 '에밀레 모형종 타종'은 에밀레전의 빼놓을 수 없는 체험이다. 범종을 타종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지만 직접 타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는 힘들기 때문. 매년 행사 때마다 가족단위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밖에 축제기간 매일 수준 높고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시와 국악의 만남', '국악과 놀다', '청년의 소리' 등 매일 컨셉을 달리해 관객들을 찾아간다. 명상음악가 홍순지, 곽홍란 시인, 소리꾼 남상일 등이 아름다운 시와 노래로 가을밤을 수놓고, 축제 마지막 날엔 동국대학교 동아리 학생들의 열정적인 무대로 피날레를 장식한다.

'2016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 개막은 10월 7일 오후 5시, 불국사 회주 성타스님,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최양식 경주시장, 김석기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개막식은 화려한 식전공연에 이어 BBS대구불교방송 사장 법일 스님의 개막선언, 점등식, 레이저쇼, 에밀레 주제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이번에 '중드'… 동자승 활약 기대하세요

〈중국드라마〉

BTN 불교TV, 10월 12일 '동자스님 소공공' 첫 방송

총 49부작…전편 우리말 더빙


BTN이 기획 방송하는 중국드라마 '동자 스님 소공공'의 한 장면.

드라마 '붓다'로 많은 화제를 모았던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 이하 BTN)가 이번에는 중국의 불교 드라마를 새롭게 선보인다.

BTN은 "오는 10월 12일 저녁9시 높은 시청률로 중국에서 호평을 얻으며 방송되었던 '동자스님 소공공'의 우리말 더빙판을 국내 첫 방송한다"고 9월 28일 밝혔다.

'동자 스님 소공공'은 동자승 공공 스님을 비롯한 저마다 다른 성격과 개성으로 똘똘 뭉친 이들이 백성의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해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를 그린 49부작 드라마이다.

주요인물로는 영리하고 꾀가 많지만 속이 깊은 동자승 공공 스님, 불경에 정통하지만 겁이 많은 물요 스님, 무공을 수련하면서도 실전에는 약한 무원 스님, 먹는 것만 좋아하고 단순한 물완 스님, 어리지만 침착한 무회 스님, 그리고 이 다섯 동자승을 아우르는 숭산 대법왕사 방장 중의대사이다.

드라마는 동자승 공공스님과 동자승들이 대법왕사와 사하(寺下)마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들과 갈등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활약상을 그렸다.

BTN에서 기획한 '동자 스님 소공공' 우리말 더빙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공모한 '우리말 더빙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새롭게 제작됐다.

BTN편성 관계자는 "깨끗한 동심과 지극한 불심으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동자승의 모습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 법속에 지혜가 있음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2015년 드라마 붓다 우리말 더빙판의 인기로 이번 드라마도 49부작 전편을 우리말로 더빙해 불자 및 시각장애우들의 편의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49부작 '동자스님 소공공'은 10월 12일 수요일 밤 9시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수 · 목 밤 9시, 일 오후 2시50분 2회 연속방송된다. 신성민 기자

이젠 몸에 좋은 천연방향제가 대세!!
천연 한방방향제
동의보향 香
DONGUIBOHYANG
동의보향은 한방약제 중 향이 좋은 생약재를 엄선한 한방향제입니다.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방향제와는 달리 자연에서 얻은 천연향으로 심신을 안정시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주는 이의 마음처럼 향기로운 동의보향은 오래토록 기억되는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 구매 시 추가로 덤 증정
•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장롱 등
• 규격 : 12*19cm(복주머니),100g
주문전화 : 010-5607-3313 (062)385-9954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제조원 : 수풀림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기도치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도치료법 1:1 또는 5인이하 실전교육을 상시합니다.
※ 기도 치료는 유사 사이비 의술이 아닌 부처님의 정법 의학입니다.
• 부처님은 약 3천년 전부터 기도치료를 가르쳐주신 大醫王이십니다.
• 기도치료는 유사 사이비 대체 의술이 아닌 부처님의 정법에 의한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질병치료법입니다.
• 캐나다에서 한의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석영창님은 그의 저서에서 "불교도들이 질병치료를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기도치료법 230P 값 19,300원
기도치료학 550P 값 24,300원
두권 구입 값 43,600원
• 위 2권의 책은 기도치료의 이론과 실제 사례를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기도치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의도한 서적입니다.
• 많은 불자님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신의 건강증진은 물론 포교와 사찰운영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전문기도치료사만 된다면 노후 걱정은 덜게 될 것입니다. 본인은 70대 중반입니다만 가끔 한달에 천만원이상의 수입을 볼때도 있습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0-2093-3385, 011-557-2773
주 소 : 경남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243-11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 협(정보석)
(책은 입금 확인후 택배비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 구독 안내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